

말레이시아 말레이인 일생의례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Rite of Passage
among Malays in Malaysia

홍석준*

Seok Joon HONG

I. 머리말

인도양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이에 자리한 말레이 반도는 예로부터 서양과 동양의 상인, 여행자, 선교사들이 만나는 황금의 교차로였다. 그래서 말레이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예전에 힌두교, 불교 문화권이었던 말레이 반도는 말라카(Malacca) 왕국의 전성기였던 15세기경에 이슬람 문화권으로 탈바꿈했다. 그 시기 말레이 반도에 유입된 이슬람은 말레이 전통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해안지역의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였던 이슬람은 내륙지역의 수장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전통 아랍사회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가르침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슬람을 통한 종교적, 문화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anthroph@mokpo.ac.kr

적 침투가 항상 현지사회와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6세기 초반 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말레이 반도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재 말레이시아의 총 인구구성은 다양한 종족집단 (ethnic group)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적 풍습과 종교적 의례 및 예술적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1년 내내 각종 종교의 행사와 의례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제공되는 곳이 바로 현재의 말레이시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이 58%,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인이 32%,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이 8%, 기타 오랑아슬리 (orang asli, 원주민이라는 뜻)라 불리는 원주민이 2%를 차지하는 다종족사회(multiethnic society)의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회가 각기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질적인 인종 혹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와 충돌 혹은 융합과 갈등이라는 격변의 역사적 과정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족들이 어울려 살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문화변동의 중요한 요인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인과 인도인의 본국으로부터의 대량 이주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식민지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족구성은 현재의 말레이시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뿐 아니라 전통종교와 의례의 특성, 특히 일생의례¹⁾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는 각 종족집단의 고유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말레이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말레이인들은 반드시 이슬람을 신봉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말레이인들은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며, 말레이 전통관습을 준수하는 사람들”

1) 이 글에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치게 되는 시기 또는 계기에 이루어지는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라고 개념 규정될 수 있는 의례를 인류학에서 통용되는 통과의례(rite of passage)(겐넵 1992)라는 표현보다는 일생의 시간적 주기에 따른 의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생의례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말레이인들은 무슬림(Muslim, 이슬람 신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도 통상 말레이인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신봉하고 전통관습을 준수하며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상의 규정이 일상생활에서의 말레이인에 대한 규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말레이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찾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누구를 말레이인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인들의 종교, 신앙관 및 세계관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많은 학자들은 말레이 전통신앙의 특징이 정령숭배의 애니미즘과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제설혼합적인 성격(syncretism)에 있다고 지적한다. 애니미즘의 기복적 성격과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다신교적 신앙관, 그리고 이슬람의 신비주의적이고 내세지향적인 믿음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례 절차를 통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다. 말레이인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체계와 신앙관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례 절차를 통해 자신의 믿음체계를 조정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적 세계와 적절하게 통합시킨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말레이 전통신앙의 이러한 제설혼합적인 특징은 일생의례와 같은 의례의 영역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Wilkinson 1957; Endicott 1970; Mohd Taib Osman 1989 참조). 특히 일생의례의 경우, 특별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keramat)을 신봉하는 제설혼합적 성격의 신앙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기법이 동원된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에 대한 말레이인들의 믿음은 다양하다. 그것은 영혼이나 귀신과 같은 정령일 수도 있고, 전설적인 인물이나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물건일 수도 있다. 영혼이나 귀신들은 사람의 몸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 속에도 존재한다.²⁾

2) 전통적으로 ‘벼의 영혼에 대한 믿음’(semanagat padi)은 논농사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말레이 농민들은 쌀 수확기에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위해 다양한 의례를 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충해를 예방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는 이러한 주술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벼에 숨어 있는 악령이 훼방을 하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것이고, 악령이 조용히 숨어 있으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는 믿음에

말레이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서로 경쟁한다.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은 악한 영혼이 주술을 걸었기 때문이며, 악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특별한 주술 기법을 통해서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례를 거행한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에 의지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의료인이라 할 수 있는 보모(bomoh)³⁾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주문이나 주술, 그리고 마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문이나 주술에 대한 지식은 주로 정령숭배의 애니미즘에 기초한 민간신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 관념은 다신성과 신비주의, 주술성, 기복성 등이 혼합된 말레이 전통신앙의 관념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는 애니미즘의 기복적 성격과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다신교적 신앙관, 그리고 이슬람의 신비주의적이고 내세지향적인 믿음이 깔려 있으며, 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례 절차를 통해 서로 혼합되어 현실 속에서 표출된다. 특히 이러한 특성과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의례, 특히 일생의례의 영역이다. 말레이인들은 다양한 일생의례의 절차와 내용을 통해 자신의 신앙관이나 세계관을 현실세계의 변화 속에서 적절히 변화, 조정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영적 세계에 통합될 수 있다는 믿음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풀이된다.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벼의 영혼'이 쌀의 수확과 저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범신론적 정령숭배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말레이 농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념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인다(Winstedt 1951, 55; Endicott 1970, 23; Firth 1974, 192). 이와 유사하게 어촌에서는 배, 어로도구, 선장의 능력 등이 풍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전승되어 왔다.

³⁾ 이 용어는 주로 말레이 농촌에서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의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주술사의 역할도 수행한다. 주술사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보모' 이외에 '빠왕'(pawang)이 있다. 전통적인 민간주술사로서 빠왕의 역할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두꾼'(dukun)과 유사하다(Geertz 1960; Woodward 1989 참조).

II. 말레이인 일생의례의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

2.1. 출생의례의 문화적 의미

말레이 사회에서는 보통 아이가 출생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아이의 출산과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주변에 널리 알리는 의례적인 행사를 벌인다. 남자아이의 경우, 의례용 음식을 위해 양이나 염소 2마리, 여자아이의 경우, 1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때 주인은 하객들을 위해 집을 개방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잔치 음식을 장만한다. 이는 출생의례를 위한 끈두리(kenduri)⁴⁾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염소 또는 양의 희생제의를 통한 끈두리의 수행은 공동의 음식 준비 과정 및 음식의 공동 분배를 통해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염소나 양을 도살하여 이웃사람들이나 이슬람 사원에 분배하는데, 이 때 도살된 고기의 일부는 말레이 무슬림 공동체 내의 일반화된 호혜성 혹은 후견인 관계를 강화하는 기제로 마을 내의 빈민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말레이 사회 내부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주요한 문화적 기제를 제공하는 의례 행위라고 해석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귀밑머리를 1센티미터 정도 잘라 집 밖으로 버리는 행위로 출생의례는 시작된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준다. 이 때 이맘(imam: 예배를 주관하는 이슬람 성직자)은 꾸란(Qur'an: 이슬람 경전)을 암송하고 하객들이 이를 따라서 반복 암송하는 것으로 생명 탄생의 기쁨과 영광을 알라에게 바친다. 꾸란 암송의 경우, 예전에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지만 이슬람부흥운동(Islamic revivalism, Islamic resurgence, Islamic revitalization movement)⁵⁾ 이후 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4) 일생의례 중에 행해지는 음식 공유 의례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 제III장을 참조하기 바람.

5) 이 용어는 말레이말로 다콰(dakwah)라 불리는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기치로 하여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강조한 이슬람 부흥운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2.2. 성인식의 특징과 의미

말레이 남자의 경우 사춘기(보통 8살에서 12살)에 이르면, 성인식을 위한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성인식의 일부이다. 말레이인의 성인식은 미성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공식 의례로서, 성인식을 마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대접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할례라는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인정된다.

할례는 사춘기에 이른 아이들을 한 장소에 수용한 후 집단적으로 거행된다. 인근 마을의 보모나 의사가 방문하여 집도하는 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할례를 마친 아이들은 3일 정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할례를 행한 아이들에게는 계란은 금기시된다. 계란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금기시된다. 식단은 밥과 채소를 위주로 이루어진다.

성인식에서도 끈두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례를 위한 끈두리는 길일을 택하여 이맘을 초청한 이후에 꾸란을 암송하고 할례를 받을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음식은 주로 낮 시간에 준비된다. 이 일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초대받은 사람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끈두리의 규모가 결정된다. 남자들이 거실 안에서 의례를 수행하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부엌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의례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구경할 수는 있다.

의례가 끝나면, 주인은 여성들이 준비한 음식을 부엌에서 거실로 옮겨 참석한 사람들을 대접한다. 모든 의례는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여자들이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종료된다. 끈두리가 열리면 가까운 이웃은 반드시 초대해야 되는 원칙에 따라 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혈연적으로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초대된다.

2.3. 혼례의 문화적 특성과 의미

2.3.1. 배우자 선택의 조건과 그 의미

말레이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족과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말레이인 젊은 남녀들은 문화적 관습이 유사한 말레이인들과 결혼한다. 그들이 결혼상대를 선택할 때 이슬람의 규범과 가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의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며, 부모의 영향과 간섭이 배우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미리 정해진 배우자와의 결혼에서 같은 말레이인 혹은 같은 무슬림이라는 동질성은 매우 중시된다. 이슬람적인 가치는 개인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권위와 역할은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하는 일에서부터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말레이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안의 성인 남녀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끈두리와 같은 잔치, 즉 음식 공유 의례를 통해 주어진다. 실제로 어느 집에서 끈두리가 열리면 방문객으로 온 젊은 남녀가 서로 인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큰 규모의 끈두리가 열리는 경우에는 남녀의 접촉이 소규모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심지어 혼인 적령기에 속한 자식이 있는 가족 간에 상견례를 통해 중매 또는 연애를 통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겨난다. 실제로 끈두리를 위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만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서로에게 자식을 알릴 수 있는 곳이 끈두리의 장이다. 이곳은 자기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집안끼리의 상호방문이 비교적 자주 행해지고 공동 작업을 하는 기회가 잦은 이러한 환경에서 남녀교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그에 관한 비밀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의 경우에 당사자들 간의 사소한 의심의 감정은 즉시 공개적인 험담이나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이념적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평판이 나쁜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어려울 정도로 마을 내에서 소문은 도시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진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침소봉대되어 사실과는 다르게 널리 퍼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혹적인 여성에 대한 평판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편이다. 누구 집의 딸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면, 그 당사자의 부모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자기 딸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할 나이에 도달한 모든 여자들은 청년 남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녀들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은 그녀 가족의 명예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들은 딸의 행동을 감독하고 통제하게 된다. 젊은 여성이 아름답거나 매력적일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걱정이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했다든지 하는 소문은 남자와 여자 측 모두에게 집안의 큰 망신으로 간주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기에 속하지만, 남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혼전 동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말레이인들 사이에서 배우자가 같은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이슬람의 규범적 강제력은 매우 강한 편이다. 자기 자녀의 결혼 상대자로 비무슬림(non-Muslim)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이슬람은 배우자 선택의 일차적 기준이 된다. 물론 이 말이 무슬림이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말레이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말레이인들 사이의 결혼에서 이슬람은 큰 의미를 갖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나 감정에 의해 비말레이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말레이인의 경우 상대방은 반드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말레이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나 무슬림으로 개종한 중국인

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결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말레이인들은 결혼 시 민족이라는 조건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다. 민족과 종교가 상충하는 경우에 말레이인들은 민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수준에서는 여전히 말레이인의 전통관습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을 지닌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민족이라는 기준이 매우 중시되지만, 가족 간의 결합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혼에서는 종교만 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말레이인들이 많다.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종족집단 내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로 개인적으로 ‘상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종족집단 내 동질성을 무시한 통혼이 일어나긴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부모의 권위와 부모가 행사하는 사회적 압력은 결혼당사자인 말레이인 남녀 모두에게 결혼 후 부부관계를 와해시키거나 불화의 소지를 남길 정도로 강력한 편이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권한은 여전히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혼의 범위 역시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 인근 도시 등의 전통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배우자 선택과 혼인과 관련된 전통적인 관행과 가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사회변화에 이슬람적 관행과 규범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그러면 말레이인들의 혼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3.2. 혼례의 절차와 내용

말레이인들의 혼례는 빠르까위난(perkahwinan), 즉 혼인을 위한 의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크게 혼인서약(akad nikah)과 버르산딩(bersanding),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에 해당하는 혼인을 위한 끈두리(kenduri untuk perkahwinah)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혼례에서는 혼인서약의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보다 비공식적인 버르산딩과 끈두리가 더 중시되었다. 혼인서약만으로는 온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버르산딩과 끈두리를 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혼인이 완성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버르산딩과 끈두리를 하지 않는 혼인이 늘고 있다. 혼인과 관련된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따르기 위해 예전엔 혼례의 일부였던 혼인서약이 혼례의 전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행을 따르던 빠르까위난에서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빠르니까안(pernikahan, 계약관계를 중시하는 혼인)으로 용어상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교리는 혼인서약만으로 혼인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혼례는 신랑 측 친지들과 신부 측 친지들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신랑 측과 신부 측 양가의 가까운 친지들과 소수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서약이 거행된다. 당일 신부 측 아버지는 통상 청색 상의와 흰색 사롱(sarong, 말레이 전통의상으로 천으로 된 치마)을 입고 머리에는 흰색 송꼭(songkok, 말레이인들이 자신의 무슬림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착용하는 모자)을 착용한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전통의상을 입는다. 혼례는 신부 측에서 거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부 측 집안의 여자들은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를 하여 신랑 측 친척들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신랑은 주황색의 전통 말레이 의상(baju Melayu)으로 차려입고 신부 측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후 혼인서약을 하기 위해 거실로 들어간다. 거실에서 신랑 측과 신부 측 친척들이 상견례를 마치면,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 어머니에게 혼수용 예물을 건넨다. 예물은 혼례에 참석한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거실 안쪽에 신부 측에서 준비한 물건들과 함께 진열된다.

신랑과 신랑 측 친척들이 신부 측을 방문할 때 신부는 다른 방에서 이슬람 종교교사(ustazah)로부터 꾸란 학습의 기초 과정을 마치는 기념 행사를 치른다. 이 행사에는 혼인과 관련된 이슬람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신부에게 꾸란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혼인과 이혼에 관한 꾸란 구절을 올바르게 암송하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꾸란 암송 시험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을 끝낸 후에 신부는 신랑 측 친척들과 하객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고 혼인서약을 위해 자리에 앉는다.

혼인서약은 이맘에 의해 집행된다. 이맘은 혼례에서 혼인서약을 주관하는 공식적인 역할뿐 아니라 혼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혼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존재이다. 혼례에서 이맘의 실질적 역할을 혼례를 이슬람식으로 주관하는 것이다. 이는 혼인서약의 핵심을 이룬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사회에는 이슬람 교구(kariah)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1명의 이맘을 임명하여 소관업무를 주관한다. 이맘은 이슬람 사원의 금요 대예배 뿐 아니라 교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각 교구에 속한 이맘은 마치 1인 정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혼례에서 신부가 소속된 교구의 이맘은 혼인서약은 물론 혼인신고와 등록 등을 포함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림 1>
혼례에서 신부가 이슬람 교리에 따라 혼인서약을 하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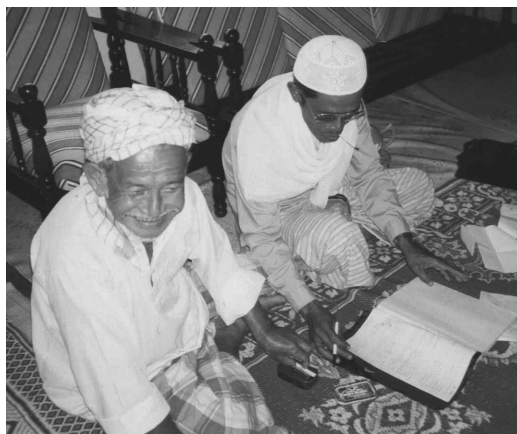
이맘이 입회한 상태에서 거실 중앙에 카펫을 깔고 이맘이 카펫의 중앙에 먼저 앉은 다음 신랑이 이맘을 마주보고 앉고 신랑 옆에 신부가 앉는 형식으로 말레이식 혼례가 거행된다. 혼인서약에는 신랑 측에서 2인, 신부 측에서 2인이 반드시 증인(wali)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신랑 측 증인들은 통상 신랑 옆에, 신부 측 증인들은 신부 옆에 앉는다. 신랑 측 증인들 옆으로 신랑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신부 측 증인들 옆으로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형으로 서로 같은 성끼리 마주보고 둘러앉는다. 그 뒤로 신랑 측과 신부 측 친척들이 나란히 앉고 다시 그 뒤에 하객들이 앉는다. 이와 같이 참석자들이 원형으로 앉은 상태에서 혼인서약이 거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착석하면 이맘은 이를 확인하고 좌중을 향해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 다음에 이맘이 먼저 꾸란 한 구절을 하면, 참석자들이 이를 복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꾸란의 내용은 주로 양가의 결혼을 축복하고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꾸란 암송이 끝나면 이맘은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알라를 향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신부 측 친척들은 고개를 숙인 채 경건한 자세를 취한다.

꾸란 암송과 예배가 끝나면 이맘은 신랑에게 이슬람의 기본 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면 이맘은 신랑에게 신부에게 지불할 결혼 비용을 얼마 지불할 것인지에 관해 묻는다.

혼례가 진행되는 중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일정한 결혼 비용을



<그림 2>
혼인서약을 위해
꾸란 경전을 읽고 있는 이맘

지불하는 것이 관례화된 전통으로 인식된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지불하는 비용을 마스까윈(mas kahwin)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액은 결혼 당사자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신부의 초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⁶⁾

마스까윈은 이슬람 혼인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1백 링깃(ringgit)(1링깃=한화 320원 상당으로 약 3만2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통상 이보다 많은 금액을 마스까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증인들은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마스까윈을 지불하고 신부 측에서 이를 수령하는 것을 확인, 점검한다. 증인들로부터 마스까윈이 정확히 전달된 것을 확인한 이맘은 마스까윈의 액수를 비롯하여 혼인서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서류에 기입하고 서명한 다음,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 그리고 증인들에게 결혼과 이혼문제를 취급하는 사무소에 제출할 혼인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모두 서명을 끝내면 이맘은 양가의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하객들에게 공표하고 알라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로써 혼인서약의 공식적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난다. 감사의 예배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 측의 남자 친척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진다.

혼인서약의 공식적인 과정이 끝나면 이어서 버르산딩과 결혼을 위한 끈두리가 진행된다. 버르산딩은 원래 힌두교의 전통에서 유래한 관습으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같이 나란히 앉는 행위를 가리킨다. 버르산딩은 혼인서약을 한 후 1주일 이전에 특정의 날을 택하여 신부의 집에서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혼례를 간소화하기 위해 혼인서약이 끝난 직후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버르산딩을 행하는 이유는 이미 혼인서약을 통해 법적으로 신랑 측과 신부 측 양가 사이의 혼인이 성립되었지만, 버르산딩을 행해야만 비로소 그 혼인이 사회적으로 공인된다는 말레이인들의 관습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것은 말레이 전통관습인 아닷(adat)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슬람 교리를 강조하는 말레이 무슬림들은 이것을 이슬람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힌두교 의례

6) 필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했던 1993년과 1994년 당시 말레이 농촌사회에서 일반 농민의 경우에 초혼인 경우, 5천링깃(약 160만원) 정도, 재혼인 경우 2천링깃(약 64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로 간주한다. 마을 내에서도 혼인서약과 끈두리만 행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로 이슬람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를 표방하는 젊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이슬람근본주의의 경향은 혼례에서 전통적인 말레이 관습에 기초한 의례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근본주의를 신봉하는 말레이인들 사이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버르산딩의 관행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에 위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고대 인도에서는 신부를 매매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신랑 측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러한 풍습이 관행처럼 굳어졌으며, 이것이 오래 전에 말레이 반도에 유입된 것이므로 말레이 전통과는 무관한 힌두교 의례라는 것이다. 이슬람의 교리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랑의 경제적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전통의 유산인 버르산딩은 반이슬람적이라는 관념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말레이 사회의 현실이다.⁷⁾

현실적으로 혼인서약만을 마친 상태에서 끈두리가 없이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버르산딩과 끈두리를 마친 후에 성관계를 맺어야만 신랑과 신부의 혼인과 부부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끈두리는 전통적인 말레이 관습의 일종으로 혼인이 성립되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 사실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 역시 신부 집에서 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끈두리를 주관하는 신부 아버지는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이어 이맘은 끈두리를 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양가의 혼인을 축하하는 내용의 꾸란을 암송한다. 이맘이 직접 꾸란을 암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맘이 하객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암송하는 경우도 있다. 암송이 끝나면 하객들은 함께 미리 준비된 식사를 한다.

⁷⁾ 버르산딩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말레이 도시사회뿐 아니라 농촌마을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끈두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림 3> 하객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끈두리의 모습

식사를 마친 하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신랑은 신부 집에 남아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 다음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을 방문한다. 신랑 측 가족들은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는 끈두리를 개최한다.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이 끈두리는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끈두리’(kenduri untuk hantar menantu)라고 불린다.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 친척들과 신랑 측의 가까운 이웃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신부를 신랑 측 친척들에게 선보이는 행사가 마련된다. 서로 인사를 마친 손님들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신랑과 신부를 신랑 측 집에 남겨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으로 혼례의 모든 과정이 끝난다.

2.4. 장례의 문화적 의미

말레이인의 장례는 사망 즉시 망자를 매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말레이인들은 망자가 현생을 마치고 내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매장하는 것이 망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늦어도 사망 후 하루를 넘기지 않은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매장 시에는 이맘을 비롯하여 마을사람들이 참가하여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사를 치른다. 이맘의 선창에 따라 꾸란

암송이 이어지고 망자의 내세 평안과 알라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다. 말레이인들은 현생뿐 아니라 내세 역시 알라가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은 현생과 내세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간의 세계로부터 알라의 세계로 전이되는 것이다. 장례식은 이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의례적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매우 간소하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슬람식 장례식이 단순하고 간소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덤 역시 현세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망자는 살아생전에 그가 가졌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사람의 무슬림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묘지 내의 동일한 평수의 매장지에 묻힌다. 다만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오래된 사람 사이에 매장 기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은 망자의 시신을 묻고 알라께 기도하고 예배를 거행하는 것으로 망자를 위한 장례식의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공동묘지에서의 장례식을 마치면 조문객들은 망자의 집으로 돌아와 망자 가족이 준비한 끈두리에 참석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헤어진다. 이로써 장례식의 모든 일정은 끝난다.

망자의 가족들은 통상 라마단(Ramadan)이 끝난 직후에 행해지는 축제, 즉 하리랴 뿌아사(Hari Raya Puasa) 행사 중에 공동묘지를 다시 찾는다. 행사 첫 날 아침에 망자의 가족들은 가장 좋은 전통 옷차림을 하고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마치고 난 후, 공동묘지에 가서 망자의 묘지를 방문하고 알라에게 망자의 평안한 안식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끈두리에 참석한다.

술과 같이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홍차와 커피, 마일로(milo, 초콜릿음료의 일종) 등과 같이 알코올이 없는 음료나 다과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 후에는 각종 축제와 대화, 그리고 가족과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일로 소일한다. 이로써 망자를 위한 의례적 절차가 일시적으로 마감된다. 다음 해에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어 거행된다. 이처럼 이슬람 종교의례의 절차에 따라 연중행사로 거행되는 것이 말레이 장례의 특징이다.

여기서 공동묘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목적이 망자의 영혼 자체 또는 그것의 평안한 안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들은 망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다만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고 알라를 칭송하기 위해 묘지를 찾는 것이다. 망자는 이제 현세의 가족들과는 상관이 없다. 현세와는 단절된 신의 세계 또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말레이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서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며, 멀라이깃(melaikat)이라는 천사가 죽은 사람의 숨을 가져간다고 믿는다. 멀라이깃이 망자를 데리고 알라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실체가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식 믿음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III. 음식 공유의 일생의례:

끈두리의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

이상에서 언급한 이슬람식 일생의례의 측면은 말레이 무슬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슬람의 기본 교리에 입각한 말레이인의 일생의례는 그들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일생의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끈두리이다. 말레이인의 모든 일생의례의 과정에는 끈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끈두리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말레이인의 종교체계와 종교의례, 특히 일생의례의 중심에는 끈두리라 불리는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의례가 있다. 이것은 말레이인의 세계관의 일부로서, 공동의 종교의례이면서 음식 공유의 축제를 일컫는다. 끈두리는 참석자들의 극적이며 사회적인 통합을 상징한다. 음식 공유를 통해 친구들과 이웃, 동료, 친척들이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에 기초한 사회집단으로 통합된다. 끈두리는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이나 긴장상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합 메커니즘이다. 끈두리는 참석자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단위로 묶는 기능을 한다(Geertz 1960, 11). 이것은 단지 단식이

나 순례를 위한 종교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출생과 혼인, 할례, 죽음, 가옥신축, 악몽, 수확, 이름의 변경, 개업, 질병, 정치적 회합 등의 사회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정화할 목적으로 열리기도 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끈두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제공된다. 행사는 꾸란의 암송을 시작으로 하객을 향한 주인의 인사가 이어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정중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끈두리는 말레이 사회의 의례적 행사, 특히 말레이인의 일생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모든 의례절차를 포함하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Geertz 1960, 14). 결혼식의 경우에, 의례적 행위를 정교하면서도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끈두리의 주제와 경위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인은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끈두리에 필요한 특정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끈두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주인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노동을 통해 의례적 상징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다(Turner 1974, 23-25). 특히 여성들의 협동은 음식 공유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다. 여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돕지 않으면, 끈두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남성들의 노동력도 동원된다. 한마디로, 끈두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동의 사회적, 의례적 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말레이인들은 왜 끈두리를 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끈두리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체감을 경험하고, 같은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질서로부터 단절되거나 유리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끈두리를 통한 무슬림의 일체감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악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끈두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부여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제한 사회적 행위란 무의미하다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배제하고, 감정적인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한 끈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끈두리의 원래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끈두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tidak ada apa-apa)라는 안전과 안녕을 보증하는 사회적 과정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

원래 끈두리는 정령이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음식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믿음이 말레이 반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Geertz, 1960, 14-15). 이것은 결국 음식이 의례의 핵심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귀신은 음식의 향기를 먹는다. 바나나의 향기를 먹는다고 바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귀신들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도 음식은 남아 있으며, 그 음식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끈두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끈두리는 음식을 공유함으로써 말레이인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와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핵심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음식을 공유하는 끈두리는 참여자들의 공통된 관심을 표현한다. 음식을 공유하는 범위는 사회적 경계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무슬림으로서의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표준이 된다. 즉, 음식 공유의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끈두리는 말레이 사회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는 지침이다. 따라서 끈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은 말레이 무슬림의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적 의례로 기능한다.

가장 넓은 범위의 음식 공유는 무슬림으로서의 말레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집단에서 나타난다. 협동과 일반화된 호혜성의 원리로서의 음식 공유 그리고 사회적 유대의 의례화된 표현의 일종인 음식 공유를 통해서 문화적, 민족적 경계가 정해지고, 민족내부의 유대와 결속이 강화되며, 서로 이질적인 지역을 여행하는 이방인 사이에서 조차 호의와 선의에 대한 기대가 요청되어 진다. 간단한 음식이 장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손님을 초대하여 “같은 접시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유리잔으로 마시는 것”은 단순한

호의나 친절 이상의 것이다.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말레이 문화는 중요한 사회관계와 사회적 상황을 의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유된 음식의 소비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식 공유는 하나의 의례이며,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혹은 정교화될 수 있다. 음식 공유의 의례가 말레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상징화한다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음식 공유가 일어나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음식 공유의 메커니즘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정교화하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그들이 조작하는 집단의 상대적 지위와 사회적 범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 공유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분석의 단위를 친족관계에 국한시키지 말고, 친족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 즉 이웃관계나 마을간 관계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이웃관계는 마을의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친족관계 보다 더 유의미한 사회적 범주가 될 수 있다. 이웃관계는 혈연이나 인척으로 연결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와 범주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독자적인 하나의 행동양식 혹은 행위의 범주이다. 대체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범위와 그 실제적 운용의 메커니즘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외적 경계를 구분한다.

끈두리는 음식 공유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웃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은 이웃사람들을 의사-친족관계(quasi-kinship relations) 안으로 끌어들인다. 한마디로 끈두리는 친족관계의 외연적 확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와 이웃관계라는 쌍대적인 관계를 일시적으로 통합시키는 상징적 기제이다. 그것은 음식 공유를 통해 친족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

IV. 맺음말에 대신하여

말레이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례적 단계, 즉 출생, 성인식, 혼례, 장례 등의 일생의례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전통 말레이적인 것에서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젠넵 1992 참조). 이슬람식 희생제의가 첨가되는가 하면, 의례적 절차와 형식이 매우 간소화되었다. 말레이 전통으로 인식되었던 종래의 관습이나 관행은 비이슬람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배제되었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인들의 혼례 중에서 버르산당은 비이슬람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교리에서 정한 규율을 따름으로써 이슬람의 가치와 규범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무슬림 공동체로서 말레이 사회는 종교적인 상징 혹은 세속적인 상징에 의해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종교적 상징과 세속적 상징이 표현하는 종족 혹은 민족 간 경계는 그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의례화된’ 수단이나 목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종교적 상징은 정과 부정을 구분하는 이슬람과 무슬림의 개념을 통해 표현된다. 이것은 대규모의 한 종교행사, 예컨대 단식이 끝난 후 행해지는 축제인 하리라야뿌아사(Hari Raya Puasa)와 같은 종교사회적 사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말레이인의 일생의례는 애니미즘,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의 요소들이 결합된 제설혼합적인 성격에 기반을 둔 신앙관 또는 종교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또는 의례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의례의 이러한 성격은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의 꾸란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전통관습과 이슬람의 대립구도가 해체되는 결과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말레이 사회에서 전통신앙이나 그에 기초한 일생의례의 전통적 성격은 종종 이슬람과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레이 사회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는 물론 다른 구성원에 대한 태도 역시 이슬람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일생의례의 수행 역시 말레이 전통과 이슬람의 가르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의미가 축소,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 전통에 기초한 일생의례의 특성과 의미를 고수하려는 집단과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원칙에 기초한 일생의례를 확립하여 이를 보급하려는 집단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생의례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말레이 사회의 종교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본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전통의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슬람과 배치되는 이질적인 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전통의례와 이슬람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시기에는 전통의례의 영향력이 이슬람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시기에는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전통의례의 쇠퇴 또는 소멸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전통종교와 이슬람은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모의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이슬람의 교리를 확장시키려는 종교 엘리트집단과 전통적인 신앙체계에 깊이 빠져 있던 말레이 평민들과의 상호작용은 한편으로는, 이슬람이 전통종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통종교의 일부로 수용되는 ‘이슬람의 전통종교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화유형과 만나게 되면서 이슬람의 정통교리에 위반되는 전통의 일부가 소멸 혹은 흡수되는 과정인 ‘전통의 이슬람화’라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말레이, 이슬람, 제설혼합주의, 일생의례, 통과의례, 끈두리

참고문헌

- 반켄넵. 1992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 Endicott, K. M. 1970. *An Analysis of Malay Magic*.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Firth, Raymond. 1974. Faith and Scepticism in Kelantan Village Magic. *Kelantan: Religion, Society and Politics in a Malay State*. William R. Roff, ed. 190-224.
- Geertz, Clifford. 1960.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hd Taib Osman. 1989. *Malay Folk Beliefs: An Integration of Disparate Elements*.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Wilkinson, R. J. 1957. Malay Beliefs. *Journal of Malay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30(3): 1-40.
- Windstedt, R. O. 1951. *The Malay Magician: Being Shaman, Saiva, and Sufi*. London: Routledge and Paul.
- Woodward, M. R. 1989. *Islam in Java: Normative Piety and Mysticism in the Sultanate of Yokyakarta*.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9.04.12 투고; 2009.05.08 심사; 2009.05.15 게재확정

<Abstra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Rite of Passage among Malays in Malaysia

Seok Joon HO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nthroh@mokpo.ac.kr

Although Malaysia chooses Islam as national religion, the nation has really shown a variety of belief systems among which we would find Hinduism, Buddhism, and Animism. Most scholars having studied them regarded the aspect of Malay traditional belief systems as syncretism. This trait of the belief systems in Malaysia is revealed well in the sphere specifically as the rite of passage, to which I do rather prefer the rite of "life" from the sense of emphasizing the rituals varied by the cycle of life time.

Under the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real phases of the rite of passage, or life of Malays. I will argue here the fact that in performing the rite of passage, Malays mobilize various arts on the basis of the syncretic faith accepting the supernatural, or keramat, with almighty power. Therefore, from the study of the rite of passage we can exactly scrutinize how Malays have altered and adjusted their belief systems in real world.

Key Words: Malaysia, Islam, syncretism, rite of passage, rite of life, kenduri